

태권도원 전지훈련 유치 노력

태권도진흥재단-문체부
7월 도쿄올림픽 앞두고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태권도원 찾아 '만족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함께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태권도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Jay WARWICK 미국 태권도협회 사무총장과 미국 태권도 대표팀 May Spence 감독이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전용경기장인 T1경기장과 전문수련시설인 평원관, 대·중·소 수련실, 체력단련실, 선수들의 건강 및 컨디션 관리를 위한 AT(Athletic Training)실, 숙소, 식당 등 전지훈련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7월 2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앞서 태권도원에서의 전지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미국 대표팀은 훈련 시설 등에 만족감을 표했다.

Jay WARWICK 미국 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은 "태권도원의 곳곳을 둘러보니 전지훈련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이번 답사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전지훈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전지훈련 외에도, 미국 태권도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나 세미나 등을 위해서도 태권도원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지난 18일과 19일, Jay WARWICK 미국 태권도협회 사무총장과 미국 태권도 대표팀 May Spence 감독이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전용경기장인 T1경기장 등을 둘러봤다.

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원이야말로 태권도 선수들의 전지훈련으로 최적지이다"라며 "미국 국가대표를 비롯해 많은 국가의 대표선수들이 태권도원에서의 전지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과 최고의 실력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무주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원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진천군청 등 다수의 태권도팀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권도원 시설 물에 대한 전문업체로부터의 내·외부 방역과 자체 분무 방역, 열화상 감지기를 통한 발열 감시, 공연장 및 순환버스·모노레일·승강기 등의 내부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컨디션·안전이 중요”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동계체전 출전 선수 격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을 찾았다.

1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정강선 회장이 강원도(평창)와 경기도(성남) 등을 돌며 동계체전에 출전한 전북 선수들을 만났다.

정 회장은 스키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빙상 등 종목별 경기가 열리는 현장을 직접 찾아 추운 날씨에도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메달 획득도 중요하지만 선수 개인의 컨디션 조절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부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회장은 “도 체육회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 체육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19일 강원도·경기도 등을 돌며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한편 동계체전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은 메달 사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전북은 금메달 15개와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등 총 37개의 메달을 획득, 경기와 서울에 이어 종합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씨름팬들 모여라’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서포터즈 27일까지 모집

정읍시는 올해 단풍미인씨름단 창단 5년차를 맞아 씨름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재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독과 코치를 새롭게 임용했으며 황찬섭, 전도연 등 뛰어난 기량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영입해 팀 경쟁력을 보강했다.

특히,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씨름 교실을 계획하고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씨름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단풍미인씨름단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 정읍시와 정읍시 씨름협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씨름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단풍미인씨름단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단풍미인씨름단 서포터즈는 씨름단의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해 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하게 됐다.

서포터즈는 단풍미인 씨름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의 현장 응원과 개인 SNS 활동을 통해 씨름단의 홍보와 소통을 이끌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씨름 붙임 확산의 일등공신 역할과 전성기 시절의 옛 명성을 끌어올려 씨름의 인기와 열정을 알리게 된다.

서포터즈 지원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



나 이메일(star3651@korea.kr)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씨름을 사랑하거나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체육청소년과(539-524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에게서 관심을 보내주고 있어서 씨름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씨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에는 현재 단풍미인씨름단과 함께 칠보초등학교 씨름단이 운영되고 있다. 매년 타 시·군의 초·중·고와 씨름팀에서 전지훈련을 오는 등 씨름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단풍미인씨름단 서포터즈 운영과 함께 11월 ‘전하장사 씨름 대축제’ 개최를 준비하는 등 씨름의 명가로 거듭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 봄, 새만금 도로 위를 달리자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4월 14일 개최

군산시가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4월 14일 연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국제공인대회로 승인한 이후 8회째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다.

대회는 42.195km 풀코스과 하프코스(21km)를 비롯해 10km, 5km 단축코스도 펼쳐진다. 엘리트와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지난해 대회부터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한 마라토너에게는 SUB-3 기념패를 주고 명예의전당에 등록함으로써 동호인들 사이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회 코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군산의 신도시권과 근대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원도심을 지나 금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강 하구둑, 철새 조망대, 나포심 자들늪을 돌아 월명 종합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코스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마라톤대회는 군산의



유명 관광지들을 경유해 하나의 관광코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달릴 수 있어 엘리트 선수 및 동호인들에게 최적의 코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